

# 母音推移의 原因과 音韻 資質

金 玄\*

## I. 序 論

構造主義의 通時音韻論은 한편으로는 변화의 結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의 原因에 관심을 두어 왔다. 전자는 Jakobson(193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개별적인 음의 변화로 인하여 그 음을 요소로 지니고 있던 體系가 변한다는 것으로서 音韻化, 非音韻化, 再音韻化와 같은 개념을 발전시켰다. 한편 변화의 原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활성화되었는바, Martinet(1952, 1955)가 선구적이라 할 것이다. 변화의 原因으로는 意思疏通의 機能과 緊密한 構造, 그리고 調音의 生理的 不均衡 등이 논의되었는데, 전자의 둘에 중점을 두었던 까닭에 이러한 연구 태도는 機能·構造主義라 불리기도 하였다.

機能(function)에 근거한 변화란 음소들 사이의 調音領域 衝突을 피함으로써 언어가 지닌 의사소통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접 음소를 밀어내는 推進 變化와 빈 자리를 채우는 牽引 變化로 나뉘는데, 두 경우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기능이 하는 역할은 다소 다르다. 전자는 합류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를 피하기 위해 調音領域이 적극적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음영역이 이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構造(structure)에 근거한 변화란 보다 긴밀한 구조를 지향하고자 하는 體系 內的 性向에

---

\*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전공 교수

의하여 음이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불안정성 혹은 불균형성이 통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動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국어의 母音推移 역시 대체로 機能·構造主義를 토대로 하여 논의되어 왔다. 본고는 모음추이의 원인이 심도있게 다루어진 몇몇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音韻 資質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서술될 수 있는지를 살핍으로써 모음추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 목적을 둔다. 音價나 變化 時期 등의 추정 역시 모음추이를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II장에서는 機能에 근거한 변화인 추진 변화를 살피면서 그것이 圓脣性和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며, III장과 IV장에서는 構造에 근거하였으되 약간은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변화를 살피면서 圓脣性 및 開口度와의 관련성을 고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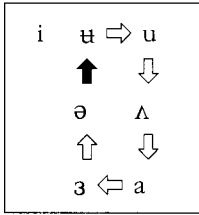
## II. 推進 變化에서의 圓脣性

인접한 두 음소의 조음영역 충돌에 의해 음변화가 일어난다는 서술을, 우리는 국어의 母音推移에서 종종 접하게 된다. 어떤 모음이 인접한 모음을 밀어내고, 밀려난 모음은 인접한 다른 모음을 밀어낸다는 등의 연쇄 변화인 推進鎖(push chain)가 그것이다. 추진쇄 관련 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연쇄 변화의 시작을 음소 A의 변화로 보고, 이것이 음소 B를 밀고 다시 음소 B가 음소 C를 밀어낸다고 하자(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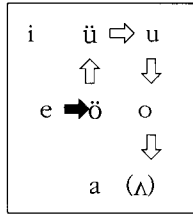
- (1) 가. 음소 A는 왜 어떤 음을 미는가?
- 나. 음소 A는 왜 음소 B를 미는가?
- 다. 음소 B는 왜 음소 A에 밀리는가?
- 르. 음소 B는 왜 음소 C 쪽으로 밀리는가?
- 미. 음소 A, B, C는 서로 밀고 밀릴 만한 음성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가?

본장에서는 추진쇄를 이용하여 모음추이를 파악하려 한 논의들을 검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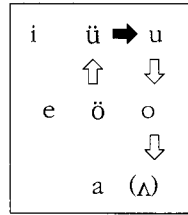
면서, (1)의 질문에 대하여 圓脣性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1>은 金完鎭(1963, 1967), <그림2>는 李基文(1968, 1969), <그림3>은 金芳漢(1964)에서 논의된 연쇄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1>



<그림2>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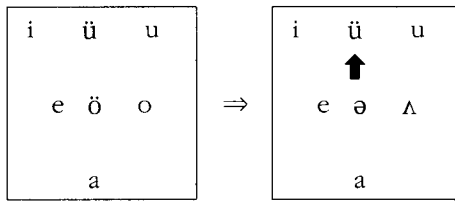
(1ㄱ)과 (1ㄴ)은 연쇄적 변화 중 첫 번째 변화의 原因과 方向에 대한 질문이다. 첫 번째 변화는 이후 여러 음들의 연쇄적인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그것도 비어 있는 조음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음소가 조음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장애를 불러올 수도 있는 변화를 다루면서, 그 원인과 방향을 밝히지 않고 그 이후의 연쇄적인 변화를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의들에서는 이 첫 번째 변화가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李基文(1969: 140)에서만 蒙古語의 한 방언에서 e의 후설화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1ㄷ)은 추진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으로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언어가 지니고 있는 意思疏通의 機能이 두 음소의 합류로 인해 저해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조음영역의 충돌을 맞을 두 음소의 대립이 얼마나 의사소통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나, 이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흔히 音素 혹은 對立이 지니고 있는 機能負擔量(functional load)을 척도로 하여 가늠해 볼 수 있지만, 그 역시 완전하지는 못하다(King 1967 참조).

(1ㄹ)은 밀리는 方向에 대한 질문이다. <그림1>의 ʌ는 중설의 ə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a로 하강하였고, <그림2>의 ö는 후설로 밀릴 수도 있고 하강

할 수 있음에도 ü로 상승하였으며, <그림3>의 ö는 ø가 상승하여 비게 된 자리로 이동할 수 있음에도 ʌ로 하강하였는바,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없는 것이다.<sup>1)</sup>

한편 原始國語로부터의 모음변화가 논의된 金完鎭(1965)는 이상의 질문들 및 (1口)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추진쇄의 첫 번째 변화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 있게 배풀어져 있다. 즉 <그림4>의 왼쪽 모습도에서 ö, ø가 ə, ʌ로 平層化된 후 기존의 e에 밀려 ə가 상승하였다는 것이다.<sup>2)</sup>



<그림4>

평순화된 ə가 상승하는 것은 ə의 조음영역과 e의 조음영역이 충돌하는 데에 기인한다.<sup>3)</sup> ø가 평순화되기 전에는 구강 내에서 e와 ö의 조음영역이 비록 가깝기는 하였어도 圓脣性에 의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하여 조음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던 데에 반하여, ö에서 평순화된 ə는 e와 調音領域만으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혹은 일부 겹치기 때문에 ə가 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e에 밀릴 처지

- 1) 다만 <그림1>의 'u↔ʌ, a↔ɜ', <그림2>의 'u↔ø', <그림3>의 'u↔ø'는 u, a의 극단적 조음 위치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는 밀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 2) 제시된 모습도로 보아 ü와 ö는 음성적으로는 중설의 y와 ø에 가까운 듯하다. ø가 평순화되어 ə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李基文(1968:243)에는 <그림2>의 ü가 주로 y로 실현되었을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한편 ö, ø의 평순화 원인에 대하여는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 3) 이는 e가 體系上으로는 저모음에 속하지만 음성적으로는 i와 a의 사이에서 발음되었으며 중설에까지 조음영역이 넓게 퍼져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金芳漢(1964:53~54)에서도 /e/가 前舌의 [e]~[ɛ]에서 中舌의 [ə]에 이르는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발음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에 놓인 ə가 밀려난 方向에 대해서도 “위에 存在한 音韻이 張唇母音 아닌 /ʷi/였기 때문에 밀려 올라갈 當場의 餘裕는 存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金完鎭 196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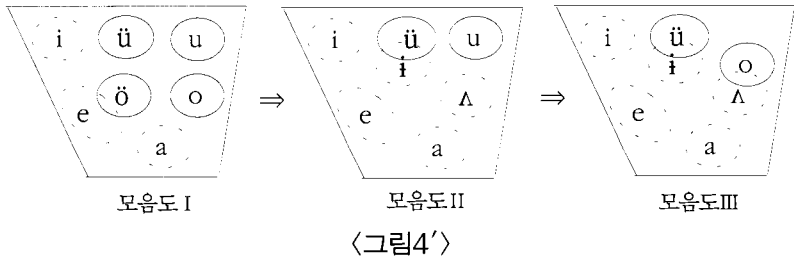
ö가 a로 평순화된 후에 비로소 e와의 조음영역이 문제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밀려날 ə의 조음영역이 평순모음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원순모음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은 앞선 질문 (1口) 즉 추진 변화에서의 圓脣性的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면서도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이다. 즉 平脣母音과 圓脣母音의 조음영역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든가, 준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은 혀의 위치보다는 입술의 모양에 의해 구별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調音領域이 어느 정도 중복된다고 하여도 合流되거나 혹은 合류를 回避하여 推進變化가 일어나거나 할 가능성은 적다. 예컨대 현대국어의 ‘ㅡ’는 중설의 i에서 후설의 u에 이르는 폭넓은 영역에서 조음되고 있고, ‘ㅜ’는 대체로 후설의 u로 발음되면서 때로는 중설의 ɤ로도 발음되는 등 조음영역만 보면 거의 중복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두 음의 音素的 對立은 입술 모양의 차이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1, 2, 3>의 각 모음들의 추진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2)	<그림1>	<그림2>	<그림3>
ㄱ	ɤ → u    ʌ → a    a → ɔ	ö → ü    ü → u    u → o	ü → u    u → o
ㄴ	ə → ɤ    u → ʌ	e → ö	

(2ㄱ)은 원순모음과 원순모음, 평순모음과 평순모음 사이에서 추진 변화가 일어난 것인 반면, (2ㄴ)은 그렇지 못하여 추진 변화 자체가 다소 의심스러운 것들이다. <그림1>과 <그림2>의 경우 연쇄 변화의 첫 번째 변화가 모두 이에 속해 있다. <그림3>은 추진 변화뿐만 아니라 牽引變化(ö → ü)도 모두 원순모음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에 관하여는 큰 문제가 없다.

정리하건대, 앞서 제기한 질문들 중 추진 변화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1 ㄷ)을 제외하고는 金完鎭(1965)를 쫓아, 국어 모음체계의 중요한 자질인 圓脣性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풀릴 수 있다. 그런데 원순성에 대한 고려는 <그림1>의 연쇄 변화의 발단만을 논의한 金完鎭(1965)에서 平脣化된 ə의 상승이 圓脣母音인 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즉 <그림4>에서 e에 밀려 상승한 ə는 ü의 조음영역을 약간 후설쪽으로 밀어냈을 수는 있지만 그 압력은 <그림1>이나 <그림2>와 같이 ü가 다시 u를 밀어낼 만큼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u의 하강은 연쇄적인 추진 변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다음은 ü가 u를 밀어내지 않았을 것을 가정한 도식이다.<sup>4)</sup>



모음도 I은 非前舌·非低母音 영역에 원순모음 넷이 각각의 영역을 차지한 가운데, ö와 e의 조음영역이 일부 중복된 상태이다. 모음도II는 ö와 o가 平脣化되고 ə가 e에 밀려 상승하여 i가 되고 이에 ü가 약간 후설쪽으로 이동한 상태이다. 문제가 되는 u의 하강은 ü의 압력보다는 o의 평순화로 인하여 후설에서 圓脣母音이 조음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하강하여 o로 변한 牽引 變化로 볼 수 있다. 이를 보인 모음도III은 결과적으로 金完鎭(1978)에서 제시된 후기 중세국어의 斜線的 體系에 가까워진 셈이다.<sup>5)</sup>

4) 실선은 원순모음의 조음영역을, 점선은 평순모음의 조음영역을 뜻한다.

5) 모음도III에서 u의 하강은 後舌圓脣高母音의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점에서 有標性이 문제될 수 있다. 金完鎭(1978)에서는 u의 하강에 대해 두 개의 원순모음이 모

### III. 構造의 緊密性

모음의 自生的인 변화는 이전 시기의 모음체계가 지니고 있는 對立 關係가 不安定하거나 不均衡的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서술되기도 한다. 이는 文法이 보다 긴밀하게 얽혀 있는 구조를 선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앞서 논의된 〈그림4〉에서 u의 하강도 이와 같은 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 즉 모음도II에서 조음위치가 서로 가까워진 i와 e가 원순성 대립쌍을 이루고, 이에 영향을 받아 u가 하강하여 ㅓ와 원순성 대립쌍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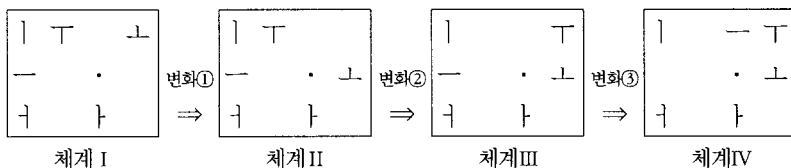
국어의 母音推移를 논의하면서 構造의 緊密性, 對立 關係의 균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박창원(1986)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圓脣性 對立雙이 강조되어 있다. 박창원(1986)의 가설은 〈그림5〉 체계를 시작으로 하여 일련의 변화를 내세웠다.<sup>7)</sup>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ㅓ	ㅓ	ㅓ
중모음	ㅡ		ㅓ	
저모음	ㅓ		ㅓ	

〈그림5〉

- 두 高母音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6)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그러하다는 것이다. 균형적인 대립 관계를 위한 음변화를 적극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변화 전후의 체계를 비교하여 相對的 緊密性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며, 변화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하고, 변화와 관련된 여느 기제와도 조화로운 설명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7) 박창원(1986)의 두 가지 가설 중 첫 번째 가설을 말한다. 두 번째 가설은 변화 후의 체계가 보다 긴밀하여졌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즉 ‘ㅣ (i)’의 非音韻化로 인해 圓脣性 對立雙을 잃은 ‘ㄱ’은 하강하여 ‘·’와 대립쌍을 이루며, 이로 인해 비게 된 후설원순고모음 자리는 ‘ㅈ’가 후설화하여 채우게 된다. 그리고 이 ‘ㅈ’는 ‘ㄱ : ·’의 圓脣性 對立의 영향을 받아 ‘ㅡ’와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단계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8)</sup>



〈그림5〉

변화①과 변화③은 모두 원순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전자에서는 ‘ㄱ’가 기존의 後舌性 대립 관계(ㄱ : ㅈ)를 버리면서까지 ‘·’와 圓脣性 대립 관계를 이루었고, 후자에서는 ‘ㅡ’가 前舌中母音에서 後舌性과 開口度가 모두 변하여 後舌高母音으로 바뀐다는, 단일한 음변화로서는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변화를 상정하면서까지 ‘ㅈ’의 圓脣性 對立雙을 완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대립 관계의 불균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 전후의 체계를 비교하여 변화 이후의 체계가 보다 緊密한 構造임을 밝혀야 한다. Trubetzkoy(1939), Martinet(1939)에 따르면 相關(correlation)의 수가 많을수록 체계는 조직적이며 안정적이라고 하는바,<sup>9)</sup> 이에 따라 우선 체계 I과 체계 II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相關이란 兩面對立, 比例對立, 有無對立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대립쌍의 총체이므로, 참고를 위하여 이들의 수도 제시한다.<sup>10)</sup>

8) 여기에서 변화②는 “비전설 고모음의 부재”로 인한 牽引 變化로 여겨지는바, 음소 대립과는 무관하므로 논외로 한다.

9) 부끄럽게도 필자는 아직 Martinet(1939)를 구하여 보지 못하였다. 관련 내용은 金完鎭(1963)을 참조한 것이다.

10) 고저대립은 우선 漸層對立이 아니라, [high]와 [low]에 의한 有無對立으로 간주한다.



(3)	양면	유무	비례	상관
체계 I	8	7	9 (①×3 ②×2 ⑤×2 ⑥×2)	5 (①×3 ②×2)
체계 II	8	7	6 (①×2 ②×2 ④×2)	6 (①×2 ②×2 ④×2)

① [±back], ② [±low], ③ [±high], ④ [±round]

⑤ [±round, ±high], ⑥ [±round, ±high, ∓low]

예) 체계 I의 비례대립 ①×3 T : ㅏ = ㅓ : ㅗ = ㅛ : ㅜ

두 체계의 兩面對立과 有無對立의 수는 동일하다. 比例對立은 체계 I이 4개의 기준에 의해 모두 9쌍이 비례적 관계에 있는 반면 체계 II는 3개의 기준에 의해 모두 6쌍이 비례적 관계에 있다. 한편 相關을 보면, 체계 I은 두 가지의 지표에 의해 모두 5쌍이 상관 관계에 있는 반면, 체계 II는 세 가지의 지표에 의해 모두 6쌍이 상관 관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두 체계 사이의 상대적 긴밀성은 數的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변화 ③의 전후 체계는 다음과 같이 모든 대립이 수적으로 동일하여 그 긴밀성을 판단할 수 없다.

(4)	양면	유무	비례	상관
체계 III	8	7	6 (①×2 ②×2 ③×2)	6 (①×2 ②×2 ③×2)
체계 IV	8	7	6 (①×2 ③×2 ④×2)	6 (①×2 ③×2 ④×2)

이처럼 수적인 면에서 볼 때 (3)과 (4)의 비교는 별다른 흥미를 끌지 못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소 달라진다. 우선 (3)에서 比例對立, 相關의 수적 차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체계 I의 비례대립 중 ‘T : ㅓ’, ‘ㅏ : ㅗ’는 [±round, ±high]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적이고, ‘T : ㅛ’, ‘ㅏ : ㅜ’는 [±round, ±high, ∓low]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적이다. 이들 각각은

유무대립도 아니고, ‘ㄱ : ㆍ’를 제외하고는 양면대립도 아니기에 상관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비록 비례대립을 이루기는 하여도 유무대립도 양면대립도 아닌 대립쌍들이 많다는 이유로 그 체계가 더욱 긴밀하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결국 구조의 긴밀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Trubetzkoy(1939), Martinet(1939)에서 밝힌 바와 같이 相關이라 할 수 있다.

相關의 本質的 性格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각 체계의 相關 指標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ㄱ. 체계 I : [back], [low]      체계 II : [back], [low], [round]  
 ㄴ. 체계 III : [back], [low], [high]    체계 IV : [back], [high], [round]

(5)의 네 체계는 <그림5>의 모음 체계에서 辨別的 機能을 하는 네 자질 즉 [back], [high], [low], [round] 모두를 상관 지표로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 체계 I은 둘, 나머지 체계는 세 자질을 상관 지표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5 ㄱ)은 수적으로만 보아도 체계 I보다 체계 II가 더 긴밀함을 알 수 있는데, (5 ㄴ)은 수적으로는 상대적 긴밀성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5 ㄴ)도 그 내용을 보면 체계 IV가 後舌性, 開口度, 圓脣性을 상관 지표로 지니고 있는 데 반해 체계 III은 後舌性和 開口度만을 상관 지표로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5 ㄱ)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체계 I은 後舌性和 開口度를, 체계 II는 여기에 圓脣性까지를 상관 지표로 지니고 있다.

<그림5>의 체계를 비롯하여 현대 중부방언의 10모음체계에 이르도록 국어의 모음체계에서 이들 後舌性, 開口度, 圓脣性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성질이다.<sup>11)</sup> 이들 셋은 어떠한 성질이 다른 성질보다 우월하다든가, 존재 여부가 시기적으로 우선한다든가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느 정도 고른 작용을 하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後舌性和 開口度를 지표로 하는 상관만을 지닌 체계보

11) 체계를 이루고 있는 변별적 자질은 모두 상관의 지표가 되는 듯하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의 순수자음체계(+consonantal, -vocalic)에서 변별적 기능을 하는 前部性(ㄷ:ㅌ=ㅌ:ㅌ), 舌頂性(ㄷ:ㅌ=ㄷ:ㅌ), 有氣性(ㅍ:ㅍ=ㅍ:ㅍ), 硬音性(ㅍ:ㅍ=ㅍ:ㅍ), 鼻音性(ㅁ:ㅁ=ㅁ:ㅁ), 持續性(ㄷ:ㅌ=ㅌ:ㅌ)은 모두 상관의 지표가 된다. 李秉根·崔明玉(1997:37)의 체계 참조.

다는 後舌性, 開口度, 圓脣性을 지표로 하는 상관을 지닌 체계가 보다 짜임새가 있다고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 생각된다.

한편 이 세 성질 중 後舌性和 圓脣性은 거의 모든 경우에 有無對立으로 서술되는 반면, 開口度는 有無對立으로 서술될 수도 있고 漸層對立으로 서술될 수도 있다.<sup>12)</sup> 그러나 이들 성질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는가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서술 방식은 記述的 妥當性(descriptive adequacy)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 |                       |                         |
|-----------------------|-------------------------|
| (5') ㄱ. 체계 I : [back] | 체계 II : [back], [round] |
| ㄴ. 체계 III : [back]    | 체계 IV : [back], [round] |

開口度를 [±high], [±low]의 有無對立으로 서술한 (5ㄴ)은 수적으로 두 체계의 상대적 긴밀성을 알 수 없으나, [in height]과 같이 漸層對立으로 서술한다면 개구도는 相關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 (5')과 같이 수적으로도 체계들간의 상대적 긴밀성을 가늠할 수 있다.

본장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구조를 지향한다는 體系 內的 原因에 의해 음변화가 일어났음을 증명하기 위한 첫 단계는 변화 전후 체계의 비교이며, 체계의 相對的 緊密性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변화 전후의 두 체계 내에 존재하는 相關의 변화이다. 검토한 두 변화에 있어서, 모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성질인 後舌性, 開口度, 圓脣性 모두를 상관 지표로 지니고 있는 체계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開口度를 漸層對立으로 서술할 경우에는 상관의 수만으로도 긴밀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았다.

12) 근대 이후의 모음체계는 母音上昇이 중모음 서열과 고모음 서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개구도를 두 자질의 有無對立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세 이전에도 그러하였으리라고 추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 IV. 剩餘的 資質의 喪失

앞서 논의한 바 있는 金完鎭(1965)에서는 ö와 o의 平脣化가 발단이 되어 모음추이가 일어났으며, 이 평순화는 “體系 自體에 內在”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 설명되어 있다.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i	ü		u
중모음		ö		o
저모음	e		a	

〈그림6〉

즉, 〈그림6〉의 모음체계에서 高母音 序列에서의 圓脣性은 i와 ü를 구별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中母音 序列에서는 평순모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ö와 o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後舌性만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모음 서열에서는 關與的 性質을 띠고 있는 원순성이 중모음 서열에서는 剩餘的인 것이 되어 두 모음이 원순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중모음 서열에 원순모음만이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이는 단지 체계상에 빈 칸(중모음 서열의 평순모음)이 존재하여, 어떤 부류에서는 음소적 대립쌍을 지닌 자질이 다른 부류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립하는 이 두 음소가 그 대립에 非關與的인 資質에 대하여 陽性(+)의 값을 지닌다는 점이다. 어떤 부류에 그들을 특징지어 묶고 있는 자질 이외의 자질에 대하여 양성(+)의 값을 지닌 음소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普遍的이지 않다. 물론 모음체계 전체로 보아서는 ö와 o가 지니고 있는 원순성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i와 ü, a와 o 등의 대립에서 원순성은 여전히 관여적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두 음소 ö와 o

의 대립에서만 그러하며, 그 때문에 이 두 모음만이 잉여적인 원순성을 잃는 것이다.

圓脣性이 剩餘的이기에 상실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모음이 원순성을 잃는다고 하여도 다른 모음과의 音素的 對立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음을 전제한다. 예컨대 ü와 ö의 대립의 경우에는 두 모음의 대립에 관여적이지 않은 원순성이 상실될 경우 ü가 i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지만, ö와 o의 경우에는 원순성을 잃는다고 하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ö와 o가 원순성을 잃는 변화를 겪더라도 두 모음의 대립 및 모음체계 전체의 대립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황일 뿐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金完鎭(1965:89)에서 이를 체계 자체 내에서 찾을 수 있는 “間接的 素因”이라고 한 것도 그러한 까닭에서라 여겨진다. 대립에 불필요한 원순성을 버리는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音素的 對立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調音의 便易(ease of articulation)를 좇기 위함이라고 보는 편이 나올 것이다. 모음의 圓脣性은 자음의 兩脣性과는 달리 양성의 값을 지닌 소리가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내민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조음방법 자질이다. 이처럼 번거로운 노력을 요구하는 조음을 하지 않고서도 두 모음의 대립, 나아가 모음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두 모음은 얼마든지 편히 조음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ö, o의 평순화는 음소적 대립 관계 때문에 일어났다고보다는, 그것이 바탕이 되고 조음음성학적 차원의 편이를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Martinet가 말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 즉, 音素的 對立의 유지에 대한 요구와 生理的인 惰性(inertia)이 조화를 이루어 經濟性(economy)을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두 모음의 대립에 非關與的이고, 그들의 부류가 陽性的의 剩餘的 資質을 지닌 경우가 <그림6>의 ö와 o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u와 o에서도 圓脣性[+round]은 잉여적이며, e와 a에서는 低舌性[+low]이 잉여적인 것이다.

(6) ㄱ. ö : o [-high] ^ [-low] → [+round]

ㄴ. u : o [-low] ∧ [+back] → [+round]

ㄷ. e : a [-high] ∧ [-round] → [+low]

굳이 양성의 값을 지닌 잉여적 자질을 섞어 조음하지 않더라도 (6ㄴ, ㄷ) 이 모두 두 모음 및 모음체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u와 o가 平脣母音으로 바뀌든, e와 a가 中母音으로 바뀌든, 충돌을 빚을 음소가 <그림6>의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

(6ㄴ)에 대하여서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有標性(markedness)이다. 즉 u는 기본적인 모음인 a, i, u 중 하나일 뿐더러, 원순성 대립쌍인 平脣母音 u(혹은 i)에 비해 複雜性(complexity)이 낮고, 後舌高母音이면 圓脣母音인 것이 無標的인 것이다(Chomsky & Halle 1968:409~410).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言語普遍的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言語特殊的인 상황은 있을 수 있으며, 국어 모음체계의 모든 역사적 단계가 무표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아울러 이러한 서술은 (6ㄷ)을 설명해 주지도 못한다. 따라서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되, 혹 다른 방도가 없는지에 대해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림6>의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바, 7개의 모음들 사이에 존재하는 총 21개의 대립쌍 중에서 [low]가 關與的인 경우가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i와 ö의 대립을 보면 比較의 根據(base of comparison)는 [-back]이고 i와 ö 각각 [-round, +high], [+round, -high]로서 [-low]가 따로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6)의 條件式이 모두 [low]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辨別的 機能을 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資質을 요구하는 잉여성 조건이 音韻論的 變化의 배경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은 모음들의 자질을 표시한 것이다.<sup>13)</sup>

13) 有無對立을 하는 세 자질은 이론적으로 8개의 음소를 구별해 낼 수가 있다. 남은 [+back, -round, +high]는 i의 몫이 될 것이다.

(7)		i	ü	ö	e	u	o	a
	[back]	-	-	-	-	+	+	+
	[round]	-	+	+	-	+	+	-
	[high]	+	+	-	-	+	-	-
	[low]							

(7)을 <그림6>과 비교해 보면 開口度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6>은 高母音, 中母音, 低母音의 3단 서열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그 체계를 바탕으로 關與的인 資質만을 표시한 (7)은 [high]를 지표로 하는 高母音, 非高母音의 2단 서열인 것이다. 金完鏞(1965:87~88)에서 추정된 兩脣子音에 의한 圓脣母音化가 'a'로 나타남을 감안하면 (7)과 같이 a와 o가 원순성 대립쌍은 아닌가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곧 ö와 o가 속한 서열에서도 원순성이 관여적이게 되어 두 모음의 평순화 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문제는 開口度의 서술 방법에 있어 보인다.

덧붙여 고려해야 할 문제는 金完鏞(1965:89)의 “圓脣性を 喪失한 두 音韻 /\*ö/와 /\*o/가 같은 ordre 또는 classe에 屬한다.”라는 진술이다. 즉 잉여성이 어떤 序列에서의 문제인지 어떤 部類에서의 문제인지 하는 점이다. 서열과 관련하여 (6)에서 잉여성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은 (6ㄱ)에 한정될 뿐이어서 u, o가 평순모음으로, e, a가 중모음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서술할 수 있게 된다.<sup>14)</sup> 이 경우 序列과 部類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開口度를 유무대립이 아닌 漸層對立으로 파악하면 된다.

- (6) ㄱ. ö : o [2 height] → [+round]
- ㄴ. u : o ([1 height] ∨ [2 height]) ∧ [+back] → [+round]
- ㄷ. e : a ([2 height] ∨ [3 height]) ∧ [-round] → [3 height]

14) e, a는 저모음 서열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들을 저모음으로 묶으면 잉여적으로 남는 것은 [-round] 즉 陰性的의 자질값이 되어 자질의 상실을 논할 수 없게 된다.

(7')	i	ü	ö	e	u	o	a
[back]	-	-	-	-	+	+	+
[round]	-	+	+	-	+	+	-
[height]	1	1	2	3	1	2	3

(6'ㄱ)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반면 (6'ㄴ)에 포함된 離接(V)은 u와 o를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 표현을 달리 하여 ([1 height] ∨ [2 height])를 ~[3 height]라고 하여도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6'ㄷ)은 조건과 결과에 모두 [3 height]가 포함되어 있고 잉여적 자질이 陽性的 값을 지닌 有標項도 아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부류에 대한 진술은 (6'ㄱ)만이 남게 되고, 이 경우의 剩餘的인 圓脣性만이 喪失된다는 서술이 가능해진다.

金完鏞(1965)에서 논의된 ö와 o의 平脣化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연쇄적인 母音推移의 發端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이 두 모음의 평순화는 대립 관계에서의 잉여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기보다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 音素的 對立은 유지하면서 剩餘的 資質을 버림으로써 調音의 便易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어났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립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직면하게 된다. 開口度를 有無對立으로 서술한다면 (7)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모음체계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u와 o, e와 a도 버릴 만한 잉여적 자질인 圓脣性和 低舌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진다. 반면 開口度를 漸層對立으로 서술한다면 잉여적 자질의 상실을 중모음 서열에만 한정할 수 있게 된다.

## V. 結 論

역사적 변화에 대한 서술에는 변화의 出發點과 終着點 그리고 變化過程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마치 생성음운론의 공시 기술에 基底形과 表面形 그리



고 導出過程이 포함되는 것과도 같다. 드러나 있는 표면형에 대해 상정될 수 있는 기저형과 도출과정이 서로 별개의 것일 수 없음은 역사적인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導出過程의 根據에 대한 서술에서 音韻 資質이 중대한 역할을 하듯이 지금껏 살핀 母音推移의 原因에 대한 서술에서도 音韻 資質은 중대한 역할을 한다.

II장에서는 機能에 근거한 추진 변화로써 모음추이를 설명한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첫 번째 변화의 원인과 방향 및 밀리는 음의 방향 등에 관한 의문에 圓脣性이 어느 정도 관련될 수 있음을 보았다. 圓脣母音과 平脣母音은 입술 모양에 의해 구별되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調音領域이 서로 重複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원순모음과 원순모음, 평순모음과 평순모음은 서로의 조음영역이 중복되면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어떤 모음이 다른 모음에 의해 밀려날 때에도 원순성은 고려되어 원순모음은 평순모음 쪽으로, 평순모음은 원순모음 쪽으로 밀려나게 된다.

III장에서는 構造에 근거한 변화를 살펴 보았다. 보다 긴밀한 구조를 지향하여 음이 변한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 전후의 체계를 비교하여야 한다. 두 체계의 상대적 긴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相關 즉 兩面對立, 比例對立, 有無對立의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는 대립이라 할 수 있다. 모음체계를 이루고 있는 세 자질인 後舌性, 開口度, 圓脣性을 지표로 하는 상관을 모두 지니고 있는 체계가 보다 긴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開口度を 漸層對立으로 기술할 때에 相關의 數만으로도 긴밀성을 판정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설득력을 지닐 수가 있다.

IV장에서는 剩餘의인 圓脣性의 喪失에 의한 변화를 살펴 보았다. 이 변화는 원순성이 잉여적인 ö와 o가 원순성을 잃는 변화를 겪더라도 모음체계가 音素的 對立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조음방법을 피하여 便易를 좇은 결과라 여겨진다. 모음체계에서 특정 모음들 사이에서 잉여적인 자질에 원순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開口度を 漸層對立으로 기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參考論著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國語學』 41.
- 金芳漢(1964), 國語母音體系的變動에 관한 考察, 『東亞文化』 2.
- 金完鎭(1963), 國語母音體系的 新考察, 『震檀學報』 24.
- 金完鎭(1965), 原始國語 母音論에 關係된 數三의 課題, 『震檀學報』 28.
- 金完鎭(1967), 韓國語發達史(上) 音韻史, 『韓國文化史大系 V』, 高大民族文化研究所.
- 金完鎭(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研究』 14-2.
- 김주원(1991), 한국어 모음추이 연구사, 『언어학연구사』, 서울大學校出版部.
- 김태현(2002), 國語의 母音推移에 대한 通時的 研究(II), 『국민어문연구』 10.
- 박창원(1986), 국어 모음체계에 대한 한 가설, 『국어국문학』 95.
- 박창원(1997), 동남 방언의 모음체계(I) - 모음사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20.
- 박창원(2004), 고대국어의 모음체계(2), 『우리말연구』 14.
- 李基文(1968), 鷄林類事의 再檢討 - 주로 音韻史의 觀點에서, 『東亞文化』 8.
- 李基文(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 李秉根·崔明玉(1997), 『國語音韻論』,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鄭然榮(1989), 十五世紀 國語의 母音體系와 그것에 딸린 몇 가지 問題, 『國語學』 18.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 Jakobson, R. (1931), *Principles of historical phonology*, trans. by A. R. Keiler, and reprinted in Baldi and Werth eds. (1978), *Readings in Historical Phonology*, Th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 King, R. D. (1967), Functional load and sound change, *Language* 43.
- Martinet, A. (1939), Rôle de la corrélation dans la phonologie diachronique, *TCLP* 8.
- Martinet, A. (1952), Function, structure and sound change, *Word* 8.
- Martinet, A. (1955), *Économie des Changements Phonétique*, 3<sup>e</sup> édition(1970), Éditions A. Francke S. A. Berne.
- Martinet, A. (1957), Phonetics and linguistic evolution, in L. Kaiser ed. and

in revised and extended edition by B. Malmberg(1968), *Manual of Phonetics*,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Romeo, L. (1963), Structural pressures and paradigmatic diphthongization in East Romance, *Word* 19-1.

Saussure, F. (1915),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최승언 역(1990),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Trubetzkoy, N. S. (1939), *Grundzüge der Phonologie*, 한문희 역(1991), 『음운학 원론』, 민음사.